

문화산책

강경호

시와사람 발행인



‘엘리트’(elite)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쓴다. 사전적 의미로 엘리트는 ‘사회에서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 또는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러나 오늘 날, 이 말은 점점 불편하게 다가온다.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는 표현은 흔히 명문대를 졸업하고 요직을 거치며 승진 가도를 달린 경력을 뜻한다.

그래서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은 앞날도 전도양양하다고 여긴다. 특히 ‘12·3 내란 사태’ 이후 내란 가담자들을 법적으로 단죄하는 과정에서 ‘엘리트’라는 호칭이 더 자주 등장해 국민의 마음을 뒤숭숭하게 한다.

군 지휘관의 경우 특정 사관학교 출신으로 주요 보직을 거쳐 빠르게 진급한 사람들, 관료의 경우 특정 대학 법대 출신으로 선망 받는 직책을 지낸 사람들을 가리킬 때 ‘엘리트’ 혹은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고 말하곤 한다.

그러나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들만의 선민의식으로 결속된 카르텔(kartell)이 존재한다. 그들은 출신이 다른 사람들을 철저히 배제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지킨다. 이로써 우리 사회에는 ‘끼리끼리 해먹는다’는 말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특정 학교·특정 업종이 계급을 형성해 불신을 조장하고, 그 힘은 때로 폭력으로 때로 노골적인 불평등으로 발현된다. 독점적 인맥 구조가 ‘엘리트’라는 말마저

무색하게 하는 셈이다.

우리가 믿어 온 ‘엘리트’란, 뛰어난 능력을 바탕으로 사회의 지도적 위치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사람을 일컫는다. 우리는 엘리트들의 명석한 머리가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모두가 평등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건설하리라 믿어 왔다. 그런데 지난겨울을 지나 봄이 저무는 지금, 우리는 ‘진짜 엘리트’가 아닌 가짜 엘리트들 때문에 나라가 분열과 혼란에 빠진 현실을 목도한다.

그들은 국가의 운명이나 국민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이익을 챙기기 위해 칼을 휘두른다. 정의와 평화가 무너져 위협받고, 수십 년 전 야만의 시대로 회귀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시민들의 저항이 이어지고 있다.

절곡의 근현대사를 지나며 우리는 정의·평화·민주주의를 쉽게 얻어 본 적이 없다. 가짜 엘리트의 욕망에 맞서, 진짜 엘리트인 평범한 시민들이 그것들을 경계하고 지켜온 나라, 바로 우리의 역사다. 그들은 특정 대학을 따지지 않고 기득권이나 카르텔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예술가들은 ‘엘리트’라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모두가 엘리트이면서도 엘리트 의식을 내세우지 않기에 오히려 진정한 엘리트라 할 수 있다. 우리 문단에서도 출신 대학을 묻지 않는다. 그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궁금해하지 않고 오직 문학적 성과만을 바라본다.

한국 문학사를 봤던 이들 중에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거나 문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많다. 그래서 문학 사회에는 ‘끼리끼리’ 문화가 없다.

문학 작품이 유일한 축매이자 우대의 기반이다. 그들은 세력을 만들지 않고, 오직 추구하는 세계에 자기 삶을 걸

고 진력을 다한다.

그들의 삶이 아무리 곤궁해도 지고(至高)한 아름다움을 향한 상상력을 발현하며, 시대를 뛰어넘는 작품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거한다.

이는 문학인만의 일이 아니다. 다른 예술 영역에도 세속적 욕망에 연연하지 않고 열정과 외로움 속에서 한국 미술사를 빛낸 솔한 작가가 있다. 부귀와 권력을 탐하지 않고 인간 정신을 풍요롭고 건강하게 형상화한 이들,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으며 불굴의 의지로 삶을 불태운 작가들 덕분에 우리의 역사는 전진했다.

오늘도 수익이 되지 않는 소극장에서, 술한 고뇌 끝에 아름다운 인간상을 되살리고자 대본을 수없이 외우고 연기를 연습하는 이름 없는 배우들이 있다. 그들의 고단한 삶은 많은 이들에게 삶의 본질과 존재 방식을 묻고 답하게 할 것이다. 목이 터져라 가락을 익히며, 수천 년 이어온 우리 민족의 정서와 풍류를 새로이 있는 어린 학생들과 국악인들도 나는 잊지 않는다. 물질적 풍요를 얻기 어려운 길임을 알면서도 꺾이지 않는 그들이 있기에 우리 사회는 더욱 아름답다.

그들은 부자가 아니며, 큰 권력도 없지만 결코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는다. 그러나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고, 편파적인 판결도 하지 않을 것이다.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 비인간적 행동을 하지 않고, 부당한 방식으로 투기하지 않는다. 인간다움을 회복하며 유토피아를 향해 묵묵히 걸어간다.

언론에서 쓸모없이 남용되는 ‘엘리트’라는 말, 참으로 거북하고 불편하다. 이제 그 말을 제 자리, 곧 본래의 의미로 되돌려야 한다.

기고

김종언

모람플랫폼 대표



우리가 ‘좋은 일’에 대해 다시 말해야 하는 이유, 요즘 청년들을 보면, 이직은 물론이고, 안정적인 대기업을 다니다가도 과감히 퇴사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겉으로 보기엔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이다. 누가 봐도 좋은 회사고, 연봉도 높고, 사회적 인식도 좋으니까. 하지만 그들이 회사를 떠나며 던지는 한 마디는 늘 비슷하다.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아니었어요.”

그 한 문장은 지금의 청년세대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정확히 보여준다. 과거와 달리 청년들에게 ‘일’은 단지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다. 그건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고, 삶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방식이다.

우리는 인생의 70~80%를 일에 쓴다. 그러니 어떤 일을 할 것인가는 곧,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정하는 일이다. 그리고 오늘날의 청년은 이 선택 앞에서 더 진지하고, 더 과감하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청년이 자신의 ‘업’(業)을 고민하고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 지역에도 존재하는가? 아직은 부족하다. 지방에는 분명 일자리가 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좋은 직장’이 아니라 그저 ‘있는 일자리’일 뿐이다. 청년들이 진짜 원하는 건, 단지 월급을 많이 주는 일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직업이다. 수도권에는 그런 기업들이 있다.

“우리는 이런 가치를 추구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해요” 청년은 그런 이야기 속에서 자신을 두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영하고, 의미를 찾는다. 그러니 수도권으로 간다. 돈 때문이 아니라, 가치를 좇아.

이제 지역도 질문을 바꿔야 한다. “청년을 어떻게 붙잡을까?”가 아니라, “청년이 머물고 싶어지는 환경이란 무엇일까?” 그 해답은 일자리의 ‘조건’이 아니라 ‘철학’에 있다.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답할 수 있는 일자리와 조직이 있을 때, 청년은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지역에 머물 이유를 찾는다.

여기서 더 나아가 지역은 하나의 현실적인 과제와 마주한다. 청년에게 어떤 형태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인가?

지금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핵심 주체는 스타트업과 소상공인 생태계다. 하지만 시대는 빠르게 디지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도 단순히 오프라인 기반의 창업공간이나 지원금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제는 지역 안에서 창업가들이 빠르게 온라인 시장에 진입하고, 나아가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생태계가 필요하다.

콘텐츠 기획과 브랜딩, 디지털 마케팅, 크라우드 펀딩 등 초기 시장 진입에 필요한 실질적 역량 교육과 실행 지원 온라인 쇼핑몰 구축, 플랫폼 연동, 풀필먼트, 고객응대 자동화 시스템 등 디지털 비즈니스 기반 확보 글로벌 진출을 위한 인증, 물류, 수출입 교육, 해외 진출 컨설팅, 해외 플랫폼 입점 및 교류 네트워크 등 수출 기반 조성 이러한 종합적인 생태계가 지역 안에 구축되어야 한다. 단순히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어떻게 세계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를 함께 고민하는 구조여야 한다.

이 점에서 싱가포르와 이스라엘은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례다. 두 나라는 애초부터 자국 시장이 작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생태계를 구축했다.

싱가포르는 정부 차원에서 해외 진출 전략을 설계하고 기업의 글로벌 확장을 적극 지원한다. 이스라엘은 초기부터 기술 중심의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시스템을 통해 전 세계 투자자들과 창업가들이 모이는 창업 허브가 되었다.

우리도 지역에서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에서 시작하되, 처음부터 글로벌을 꿈꾸는 창업가들, 그들이 많아질수록, 자연스럽게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청년은 ‘떠날 이유’ 대신 ‘남을 이유’를 찾게 될 것이다.

정리하자면,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는 단지 정주 여건이 좋은 곳이 아니다. 그건 청년이 스스로의 ‘업’(業)을 설계하고 실현할 수 있는 곳이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그 일을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도시, 그러기 위해 지방도 변화해야 한다.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왜 이 일을 하느냐’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조직이 많아져야 하고, 창업도 ‘아이템’이 아니라 ‘가치’를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정책도 청년을 수혜자가 아닌 ‘주도자’로 세워야 한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리고 지방이 살아남으려면, 청년이 머물 수 있어야 한다. 그 시작은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질문에서 비롯된다.

“이 도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수 있는 곳인가?” 그 질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그런 도시가 많아질수록, 청년은 더 이상 떠나지 않을 것이다.

취재수첩

문화로 기억하는 광주 오월

김다경

문화체육부 기자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오월 광주 정신’을 담은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가 한 달 동안 펼쳐져 주목된다.

특히 5·18을 소재로 한 주요 예술 단체들의 브랜드 작품이 재공연되며 오월정신 계승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광주시립발레단은 5·18 희생 정신을 예술로 승화시켜 치유와 위로를 전하는 컨템포러리 발레 ‘DIVINE’을 16일부터 17일까지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무대에 올린다. 2023년 7월 초연 이후 무용계와 평단의 큰 찬사를 받은 작품으로, 지난해 ‘제29회 한국발레협회상’에서 올해의 작품상을 수상한 바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관객참여형 연극 ‘나는 광주에 없었다’가 15일부터 18일까지 선보이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의 치열했던 10일간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관객이 시민군의 입장에서 긴박했던 항쟁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꾸렸다.

5월 음악극 공연을 3년째 이어오고 있는 창작극단 단도리는 18일 북구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음악극 ‘끝나지 않은 오월’을 선보인다. 특히 12·3 비상계엄 이후 120여일간 시민들이 모여 역사적 승리를 이끌어낸 상황을 무대에 함께 담아낼 예정이다.

2022년 첫 선을 보인 공연 ‘오월어머니의 노래’도 오는 24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 오월어머니들의 한을 노래로 승화한 공연으로, 지난해에 이어 국악인 오정혜씨가 참여해 오월어머니의 절절한 사연을 전한다.

또 푸른연극마을은 고 김대중 대통령의 일대기를 소재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는 역사 연극 ‘사형수 김대중’을 지난 14일과 15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선보이며 오월정신의 무게를 되새겼다.

오월정신이 문화예술을 통해 꾸준히 대중과 만나며 그 의미와 가치를 이어가길 바란다.

OPINION

2025년 5월 16일 금요일

사설

5월에 열리는 ‘G-페스타 광주’ 정착되길

페스타(Festa)는 이탈리아어로 축제를 의미하며, 특별한 기념일이나 이벤트를 축하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는 즐거운 행사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종종 ‘페스티벌(Festival)’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만 주로 친근하고 일상적인 즐거움을 제공하는 지역 축제나 브랜드 홍보 이벤트에서 자주 사용한다.

반면 페스티발은 영어권에서 널리 사용되며 주로 대규모의 축제나 문화 행사를 가리킨다고 한다. ‘부산국제영화제’같은 국제 행사나 대규모 공연 중심의 ‘뮤직 페스티벌’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해마다 5월만 되면 엄숙해지는 ‘80년 오월’의 광주에서 광주 축제 통합브랜드 ‘지(G) 페스타’ 봄시즌이 올해 처음 열린다. 광주시가 ‘2025 광주 방문의 해’를 맞아 G 페스타를 오늘부터 6월 8일까지 2개의 테마로 구성해 개최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행사는 ‘오월광주’와 ‘열정×익사이팅’ 테마로 총 11개의 축제·행사로 진행된다.

먼저 첫 테마인 ‘오월광주’는 제45주년 오월광주 민주대축제와 연계해 ‘2025 세계인권도시포럼’, 광주인권상 시상식, 민주평화대행진과 시민 난장 등 풍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린다.

또 31일까지 축제·행사와 5·18민주화운동 사적지를 연계한 ‘오월 스탬프투어’도 운영한다.

두 번째 테마인 ‘열정×익사이팅’은 오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5개의 축제·행사로 지역에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광주식품대전’과 ‘티앤가페소’, ‘광주주류관광페스타’ 총 3개의 대규모 박람회가 열리며 ‘광주스트릿컬처페스타’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시가 통상 가을에 운영하던 ‘G-페스타’를 사계절 축제로 확대 운영기로 한 것은 올해 ‘광주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광도시로의 대전환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광주시는 5·18과 스포츠, 그리고 노벨문학상 소설 ‘소년이 온다’의 배경도시 등 광주 강점을 살린 관광상품을 개발·출시하고 숙박비 할인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다.

이번 G-페스타가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광주의 감성과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

지역 고용시장 악화…대책 마련 서둘러야

광주·전남 지역 경제의 근간이 되는 고용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정규직·무기계약직·기간제 근로자를 지칭하는 양질의 상용직 일자리는 갈수록 줄고 이를 대체하는 임시·일용직만 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계속되는 경기불황과 내수 침체로 자영업 폐업자도 증가하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4월 광주·전남 고용동향’을 보면 암울한 지역 일자리 현실이 여실히 드러나 있다.

광주의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77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8만 7000명)보다 1만 5000명 줄었다. 이 기간 전남 취업자 수는 100만8000명으로 지난해(101만6000명)보다 8000명 감소했다. 1년새 일자리가 1만 5000개 이상 줄어든 것이다.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데 있다. 실제로 광주의 경우 임금근로자(61만1000명) 중 일용근로자는 3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2만 6000명)보다 5000명, 임시근로자는 13만8000명으로 2000명 늘었지만 상용근로자는 지난해(45만명)보다 7000명 줄어든 44만 3000명을 기록했다. 이 기간 전남도 임시근로자는 1만3000명 증가한 반면 상용근로자는 2만3000명 감소했다.

또 자영업자 수도 크게 줄었다. 광주의 경우 14만 3000명으로 지난해 4월(15만5000명)보다 1만2000명 줄었고 전남(29만 7000명)에서 지난해(29만8000명)보다 1000명 감소했다.

1년새 1만3000명이 폐업했다는 것이다. 이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외식 등 외부 소비를 줄이는 소비 행태가 그대로 굳어져 장사하기 때우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실업자 수는 광주(2만8000명)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7000명 늘어난 반면 전남(2만1000명)은 오히려 4000명 감소했다고 한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지역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의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인공지능산업, 미래차,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먹거리 산업 확보에 적극 나서고 특히 전후방 기업들, 연구소 등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업들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회장·발행인·편집인	전용준	논설실장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10	논 설 실		370-7060
경 제 부		370-7020	뉴미디어본부		370-7222
사회교육부		370-7030	임 원 실		370-7000
지역사회부		370-7040	총 무 국		370-7093
문화체육부		370-7234	사 업 국		370-7090
편 집 부		370-7082	광 고 국		370-7070
사 전 부		370-705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02-978-70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